

『韓國語教育研究』(第8号) 別刷

ISSN 2186-2044

【研究論文】

한일 한자어의 대조고찰
—‘한자어+ 후행요소’를 중심으로—

趙 惠真

日本韓國語教育学会

2018年9月

한일 한자어의 대조고찰 —‘한자어+ 후행요소’를 중심으로—

趙 惠真

本論文は、日本語を母語とする日本人の韓国語学習者が韓国語の漢語を適切に使えるため、日韓両言語における「漢語+後部要素」の形を中心に考察し、学習者に漢語リストを提示できるように分類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漢語動詞の場合は、一般的に漢語の後部には「する」と「하다」が付加されて使われるが、漢語の後部に「する」と「되다」または、「치다, 가다, 시키다, 나다」が対応する場合も観察される。このような場合、学習者は母語のように「する」をつけて使われる可能性が高い。漢語形容詞の場合は、通常「漢語+だ」と「漢語+하다」が対応するが、韓国語における漢語形容詞は、「하다形のみの場合」「하다形と他形の共存」「他形のみの場合」「하다形漢語動詞との両立」のように四つの下位分類できる。以上のような「漢語+後部要素」の形の検討を通じて、漢語の使い方についての重要性が指摘でき、今後日本人韓国語学習者に提示することのみでは負担を軽減させると考えられる。

1. 들어가기

한일 양국에서 높은 비율로 한자어¹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자어가 양국 어휘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동시에 일본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할 때 한국 한자어의 이해 정도에 따라 오류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미 많은 교사와 학습자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교사들은 누구나 염두해 두고 교수하는 부분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일본인 학습자는 한국어와 자형이 같은 한자어를 동사화 또는 형용사화시킬 때 일본어에 존재하는 후행 요소로 결합하여 잘못된 발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아래²와 같은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¹ 일본어에서는 ‘한어(漢語)’라고 쓰이지만 한국어에서는 주로 ‘한자어’라고 쓰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한자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² (1)의 예문은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 (1) a. 이번 지진때문에 정전했어요.(停電する). (2018.9.25 학습자 M)
 b. 그의 자유인(自由な) 생활이 부러워요. (2017.2.4 학습자 T)

(1a)는 한자어 ‘정전’에 ‘되다’가 결합하는 한국어와는 다르게 일본어 영향을 받아 ‘정전+하다’로 발화된 경우이다. (1b)는 한자어 ‘자유’에 접미사 ‘롭다’가 결합되어 ‘자유롭다’로 발화되어야 할 부분에서 ‘자유이다’로 오류를 일으킨 경우이다. 자형이 같은 한자어이지만 후행요소가 한일 양국어에서 달리 결합될 경우 학습자들은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논문은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일본인 학습자들이 한자어를 동사화 또는 형용사화시킬 때³ 한자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자어와 결합하는 후행 요소를 중심으로 대조 고찰하여 후행 요소를 그룹으로 분류하여 차후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손연자(1984)에서 시작된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자어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한자를 접하지 않은 비한자권 학습자를 위한 것이었고, 한자권 학습자의 한자어 교육은 중요시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1990 년대에 들어서면서 한자어 교육에 대해 언어권별로 교육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김중섭(1997)에서는 한자권과 비한자권으로 나누어 한자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한자권 내에서도 학습자의 모어에 존재하는 한자어와 한국 한자어가 다른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수에 유의한다고 언급했다. 그 중 특히 일본인 학습자에게는 자형의 차이가 있는 한자어나 한자음, 표현의 차이가 나는 한자어를 교수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한국어 교육 전공에서의 한일 한자어 대조연구는 2000 년대 이후로 많은 성과가 나타났다. 이 중에서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한자어 대조 연구를 시행한 이동은(2002), 김창구(2003), 사노(2004), 카이모리(2005), 조혜경(2010)을 중심으로 언급해 보고자 한다.

³ 본고에서는 한자어를 동사화시킨 것을 ‘한자어 동사’, 형용사화시킨 것을 ‘한자어 형용사’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동은(2002), 사노(2004)에서는 한국 기초 한자 1,800 자와 일본 상용한자 1,945 자⁴를 사용하였는데 한국 기초 한자 1,800 자는 1972 년에 제정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정한 한자 목록이기 때문에 외국인인 일본인 학습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논문이 기술된 시기에는 한국어 학습을 위한 어휘 목록이 제시되기 전이기 때문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 한자 목록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김창구(2003)에서는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한자어를, 카이모리(2005)에서는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2003)을, 조혜경(2010)에서는 한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002)의 어휘를 대상으로 삼았다. 좀 더 외국인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어휘 목록으로 연구 대상이 바뀌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제로는 주로 자형, 한자음, 의미가 분석되었다. 자형에 대해서는 이동은(2002), 사노(2004), 카이모리(2005)에서 다루었고, 한자음에 대해서는 이동은(2002), 김창구(2003), 사노(2004), 카이모리(2005)에서 연구되었다. 그리고 한자어의 의미는 모든 연구에서 다룬 내용이며, 특히 조혜경(2010)에서는 한자어의 의미만을 다루었다. 자형은 초기의 연구에서만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이후의 연구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이 이유로 일본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는 한자를 직접적으로 읽거나 쓰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형을 제외하고 한자음과 의미가 꾸준히 연구되는 주제인데 특히 의미는 모든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이는 초기 일본인 학습자에 대한 한자어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한 김중섭(1998)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모국어인 일본어의 간섭으로 인해 일본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발화할 때 일본 한자어를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자어와 결합하는 후행요소에 관한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 쓰임에서는 한자어만으로 발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어+후행요소’의 형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한 언급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⁴ 일본의 상용한자(常用漢字)는 현대 일본어의 표기에 사용되는 한자 가운데 일본 문부과학성 국어심의회가 ‘한자와 관련된 정책’에 따라 발표한 표준 한자이다. 1981년 10월 1일 일본의 내각 고시 제 1호 ‘상용한자표’에 의해 발표되었고 이 고시에 따르면 ‘법령, 공용, 문서, 신문, 잡지, 방송 등 일반 사회생활에서 사용할 때 효율적으로 공통성이 높은 한자를 모아 알기 쉽고 소통하기 쉬운 문장을 표기하기 위한 한자 사용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한다. 총 1,945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등교육과정 학습대상에 포함되는 1,066자와 중고등학교 학습대상에 포함되는 939자로 구성된다.

논문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한자어+후행요소’에 관한 형태영역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3. ‘한자어+후행요소’의 대조 분석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법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한자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한자어는 일본어 ‘한자어+する (이하, する형)’와 한국어 ‘한자어+하다(이하, 하다형)’의 형태로 대응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일본어 ‘する’에 한국어 ‘하다’를 바꿔 넣으면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의 모든 한자어가 ‘하다’와 결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자어에 결합하는 후행요소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한국어에서 한자어와 결합하는 후행요소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한자어 동사와 한자어 형용사⁵로 나누어 검토하겠다.

3.1 한자어 동사의 경우

3.1.1 ‘する형’과 ‘하다형’의 대응

生越(1982)에서는 한일 양국에서 한자어가 많고, 그 한자어 중 대다수는 ‘する’와 ‘하다’를 결합시켜 동사로 쓸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한일 양국어에서 생산적인 형태로 존재하면서 규칙적인 형태 대립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는데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2) I. (자동사) 한자어+する ↔ 한자어+하다
- II. (자동사) 한자어+する ↔ 한자어+되다
- III. (타동사) 한자어+する ↔ 한자어+하다
- 한자어+される ↔ 한자어+되다

I 과 III은 각각 자동사일 때와 타동사일 때의 형태인데 한일 서로 같은 형태로

⁵ 연구자에 따라서 ‘한자어 형용사(손해서 2014)’, ‘한자어어근 하다형 형용사(엄성호 2015)’, ‘한자어어근 파생형용사(장나 2015)’등의 용어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한자어 동사’와 대응되는 용어로 ‘한자어 형용사’라고 칭하기로 한다.

표현된다. 그리고 Ⅱ의 경우 일본은 ‘する’가 한자어와 결합하여 사용되지만 한국어에서는 ‘되다’가 접속한다.

토우조우(2008)에서는 한국어에서의 ‘한자어+하다’의 형태는 사용 빈도가 높고 그것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자어+하다’와 ‘한자어+する’는 양국의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표현이고, ‘하다’와 ‘する’ 앞에 오는 한자어 어휘의 학습만으로 표현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Ⅰ과 같은 분류의 경우는 한자어 목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감소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한국어의 한자어 동사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거의 모든 경우에 ‘하다’가 한자어와 결합하여 나타난다. 이때의 ‘하다’는 어휘적인 의미는 가지지 않고 명사를 동사화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는 기능동사(機能動詞)이다.

또한 신어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주로 ‘하다’와 결합하여 쓰인다. 2002년 이후 등장으로 보여지는 ‘복회(複會)’ ‘혼입(婚入)’⁶의 경우도 ‘하다’와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 (3) a. 신규 입회 또는 복회하는 모든 회원에게(이하 생략)
- b. 같은 집안으로 혼입해왔다는 점과(이하 생략)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하다형’이 나타난다.

3.1.2 ‘する형’ 과 ‘되다형’ 의 대응

형태가 같은 한자어는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지만, 형태가 달리 나타나면 한자어는 학습자에게 많은 오류를 불러 일으킨다. 동형 한자어라면 모어에서 사용하는 후행요소를 적용하여 발화하는 오류가 적지 않을 것이다. 앞서 (2)에서 제시한 분류 중 Ⅱ가 이에 해당한다.

‘되다’는 본래 (4a)와 같이 ‘새로운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4b)와 같이 수동형으로도 쓰인다.

⁶ 국립국어원 편(2007) 『사전에 없는 말 신조어』 태학사

- (4) a. 나는 선생님이 되었다.
 b. 도둑이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하지만 ‘충혈(充血)되다’의 ‘되다’는 위의 (4)의 ‘되다’와는 다른 성질을 지닌다. ‘충혈(充血)’과 같이 일본어에서는 ‘する형’으로 나타나지만 한국어에서 ‘되다형’로 나타나는 것은 아래와 같은 한자어⁷를 들 수 있다.

- (5) 결렬決裂, 경직硬直, 고갈枯渴, 고조高調, 방수防水, 발각發覺, 변질變質, 분산分散
 변형變形, 소외疎外, 둔화鈍化, 실종失踪, 악화惡化, 약화弱화, 연루連累, 와해瓦解
 전소全燒, 조난遭難, 누수漏水, 골절骨折, 중독中毒, 판명判明, 혼선混線, 와전訛傳
 정전停電, 상반相反, 결핍缺乏

尹 盛 熙 (2005)에서는 (5)과 같은 한자어는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성격을 지닌다고 언급하면서 한자어의 의미 특징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する’가 결합하는 일본어의 한자어 동사의 구성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이상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되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되다’는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한자어 명사를 동사화한다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는 ‘하다’의 특성과 동일하다. 선행요소인 한자어의 특성에 따라 ‘하다’ 또는 ‘되다’가 선택되는데, 한자어가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하다’와 상보분포의 관계에 있는 ‘되다’가 한자어와 결합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어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거의 모든 경우에 ‘하다형’이 나타나지만 신어 ‘피폭(被曝)⁸’의 경우는 ‘되다형’로 나타난다.

- (6) 여행자가 방사능에 피폭되었다.

‘피폭(被曝)’도 상태를 나타내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동사화할 때에는 ‘되다’가

⁷尹盛熙(2005), 生越(2008)의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와 필자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추출한 한자어 목록을 중심으로 한국어 모어화자 10명에게 앙케이트를 실시하였다. 10명 중 과반수 이상이 ‘한자어+되다’로 사용한다고 체크를 한 한자어 목록이다.

⁸‘피폭’의 경우 被曝과 被曝이 있는데, 被曝의 경우에는 1900년대에도 쓰임이 나타나지만 被曝은 1950년 이후로 나타나는 신어이다.

결합된 형태로 출현한다.

한편 生越(1982)에서는 한일 한자어 대응관계를 (2)의 대응관계로만 설명했지만, 한일 한자어에는 아래와 같은 대응관계도 존재한다.

(7) IV. 한자어+する ↔ 한자어+기타(시키다, 가다, 치다, 나다)

다음 절부터는 ‘する형’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한자어+시키다, 가다, 치다, 나다(이하, 시키다형, 가다형, 치다형, 나다형)’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다.

3.1.3 ‘する형’에 ‘기타형’이 대응하는 경우

일본어의 ‘する형’에 한국어의 ‘하다형’과 ‘되다형’ 이외에 ‘시키다, 가다, 치다, 나다’이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

- (8) a. 연극이 끝나고 박수 친다. (拍手する)
b. 도둑이 경찰을 피해 도망 갔다. (逃亡する)
c. 이 작품은 관객을 매료시킨다. (魅了する)
d. 컴퓨터가 고장 났다. (故障する)

위의 (8)에서 볼 수 있듯이 한자어 ‘박수(拍手)’, ‘도망(逃亡)’, ‘매료(魅了)’, ‘고장(故障)’에 각각 ‘치다’, ‘가다’, ‘시키다’, ‘나다’라는 동사를 결합시켜 사용 가능하다. 이의 경우 일본어에서는 모두 동일 한자어에 ‘する’가 결합하여 사용된다.

趙惠真(2017)에 의하면, (8)의 한자어는 1900년대 초까지는 모두 ‘하다’가 결합하여 쓰였던 것이 1950년을 기준으로 한자어와 결합하는 후행요소의 형태가 바뀌었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한국의 한자어가 가지고 있던 동작성이 없어지면서 기능적인 역할만 하고 있던 ‘하다’를 밀어내고 ‘하다’ 대신에 구체적인 동작성을 나타내는 동사가 한자어와 결합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3.1.3.1 치다형

‘박수(拍手)’의 경우 위의 (8a)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치다’가 결합되어 동사화된다. ‘치다형’은 앞서 언급한 ‘되다형’과는 다른 현상이 보인다. ‘되다’는 본래의 의미를 잃고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능동사이지만 ‘박수(拍手)’와 결합한 ‘치다’는 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동사(實質動詞)이다.

‘박수(拍手)’라고 하는 한자어는 ‘박(拍)’에서 이미 ‘치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박수 치다’의 구조를 ‘악수 하다’의 경우에 함께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9) a. 손 쥐다 → 악(握)수
b. 손 치다 → 박(拍)수

‘악수(握手)’의 경우는 한자어의 내부에 술어의 의미인 ‘쥐다(握)’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미 ‘악수(握手)’에는 ‘손을 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동사화할 때에는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하다’가 결합되어 쓰인다. 이와 같이 ‘박수(拍手)’ 또한 ‘악수(握手)’와 같은 구조로, 술어의 의미를 나타내는 ‘박(拍)’이 포함되어 있어 ‘박수(拍手)’에는 ‘손을 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하지만 ‘악수(握手)’와는 다르게 ‘하다’가 아닌 ‘치다’와 결합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박수(拍手)’의 동사성을 나타내는 ‘박(拍)’의 성질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박수(拍手)’의 동작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뒷부분에 동작성의 의미를 나타내 줄 다른 동사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0) a. 손 치다 → 박수 + 치다 (실질동사)
b. 손 쥐다 → 악수 + 하다 (기능동사)

‘박수(拍手)’는 ‘치다형’으로 나타나지만 앞서 언급한 ‘하다형’이나 ‘되다형’과는 다르게 실질적인 의미가 나타난다.

3.1.3.2 가다형

한자어 ‘도망(逃亡)’은 (8b)와 같이 ‘가다’와 결합하여 동사화된다.

‘가다’는 실질동사로 ‘이동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학교 가다’와 형태적인 면에서는 같다고도 볼 수 있지만 선행부분에 위치하는 한자어 ‘도망(逃亡)’은 ‘학교’와 같이 장소를 나타내지 않는다. ‘도망(逃亡)’이라는 한자어에는 ‘피하다(逃)’라는 이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동사의 후행요소인 ‘가다’의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도망 가다’에는 ‘이동’의 의미가 중복되어 있다.

이 경우도 앞선 ‘치다형’과 같이 한자어에 포함된 동작성이 열려져서 동사화될 때는 기능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하다’로는 의미를 나타낼 수 없어서 동작성을 채울 수 있는 ‘가다’가 첨가되어 나타난다고 보여진다.

3.1.3.3 시키다형

‘한자어+하다’의 경우 사역으로 나타낼 때에는 한자어와 ‘시키다’를 결합시켜 나타낸다.

- (11) a. 아이가 운동한다.
b. 부모가 아이에게 운동시킨다.

그런데 ‘시키다’에는 (8c)와 같이 사역형이 아닌 다른 성질의 쓰임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최현배(1929)에서는 단순히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하다’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시키다’를 쓰는 오용이 꽤 많이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키다”를 그릇 쓰는 수가 있나니, 그는 “하다”로 넉넉한 것을 공연히 “시키다”로 하는 것이다. 보기를 들면, ‘김 아무가 민중을 선동시켜서...’, ‘술이란 것은 신경을 자극시킨다.’의 같은 따위이니라. 제음직씨의 “하다 따위 음직씨”를 남음직씨 같이 만들어 쓰는 데에는 “시키”가 필요하지마는, 본대 남음직씨를 그저 단순한 남음직씨로 쓰는 데에는 조금도 하임의 뜻을 보이는 “시키”가 필요없는 것이어늘, 흔히들 이것을 깨치지 못하고, 조심없이 “시키”를 붙여 씀은 무서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최현배 1929:415-417)

최현배(1929)는 위와 같이 ‘하다’를 사용해야만 하는 곳에 ‘시키다’를 쓰는 오용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柴 (1993)에서는 ‘한자어+시키다’의 ‘시키다’는 문법적으로 사역형으로 보기 어렵고 문맥에 따라서 ‘하다’의 강조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8c)의 한자어 ‘매료(魅了)’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홀리게 함 (『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의미를 지녔고, 이미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키다’와의 결합이 이중사역이 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 柴 (1993)의 의견에서 보면 ‘시키다’는 강조, 강제 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외의 예는 ‘매혹(魅惑)’, ‘세뇌(洗腦)’, ‘오염(汚染)’, ‘현혹(眩惑)’, ‘경질(硬質)’, ‘구속(拘束)’을 들 수 있다. 그런데 (8c)의 ‘매료(魅了)’를 포함하여 ‘시키다’형은 ‘하다형’과 공존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2) a. 이 작품은 관객을 매료시켰다/매료했다.
 b. 이 영화가 전세계를 매혹시켰다/매혹했다.
 c. 선생님이 학생을 세뇌시켰다/세뇌했다.
 d. 주민이 강을 오염시켰다/오염했다.
 e. 백화점은 고객들을 현혹시켰다/현혹했다.
 f. 팀이 감독을 경질시켰다/경질했다.
 g.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시켰다/구속했다.

이는 ‘하다형’과의 공존이 없었던 ‘되다형’과 ‘치다형’, ‘가다형’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12)의 예문에 대해서 한국인 모어화자에게 앙케이트를 실시한 결과 ‘시키다형’이 우선적으로 선택되어 쓰인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하다형’에서 ‘시키다형’으로 바뀌는 언어변화의 과도기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3.1.3.4 나다형

(8d)와 같이 한자어 ‘고장(故障)’과 ‘나다’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나다’는 ‘신체 표면이나 땅 위에 솟아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래는

‘나다’가 실질적인 의미로 쓰이는 예이다.

- (13) a. 여드름이 났다.
b. 발에 싹이 났다.

하지만 ‘고장(故障)’은 (13)의 ‘여드름’, ‘싹’과 같은 실질명사가 아닌 추상명사이다. 이에 동작성이 없는 한자어 ‘고장(故障)’과 결합하는 ‘나다’는 동작성을 나타내는 동사로서의 쓰임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3.2 한자 형용사의 경우

3.2.1 ‘한자어+だ’ 와 ‘한자어+하다’ 의 대응

한국어에서는 한자어와 ‘하다’를 결합하여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로도 나타낼 수 있다. 한국의 한자어 형용사에는 일본어 ‘한자어+だ’가 대응된다⁹.

야마시타(2002)에서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설문 조사를 하여 ‘하다’ 사용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파악하였는데 ‘하다’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이다’를 선택한 경우가 많았음을 지적하였다. 가령, ‘건강하다’인데 ‘건강이다’를 선택한다든지, ‘가능하다’로 발화될 부분에서 ‘가능이다’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어의 지정사인 ‘이다’가 일본어의 활용어미인 ‘だ’에 대응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일본인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 (14) a. 그는 아주 건강하다.
b.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다.

(14a)의 ‘건강하다’는 형용사이고, (14b)의 ‘건강이다’는 ‘명사+지정사’이다. 그러나 일본어에서는 두 경우가 모두 ‘健康だ’라는 형태로 나타나 표면상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인 학습자가 일본어의 ‘だ’를 한국어의 ‘이다’와 같은 것으로 혼동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한자어는 아래와 같은

⁹ 일본어의 경우, ‘한자어+だ’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 정의가 존재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형용동사(形容動詞)’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자어가 나타난다.

- (15) 가능可能 간결簡潔 간단簡單 강력強力 거대巨大 건실健實 건재健在 결백潔白
경솔輕率 경쾌輕快 단순單純 담대胆大 독특獨特 무례無禮 복잡複雜 엄밀嚴密…

위의 표와 같은 한자어는 한국에서 ‘하다’와 결합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だ’와 결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3.2.2 한국의 한자어 형용사의 분류

앞 절에서는 일본의 ‘한자어+だ’에 대응하는 한국어 ‘하다형’의 예를 들었지만, 한국의 한자어 형용사는 ‘하다형’ 이외에도 한자어와 다양한 후행요소가 결합하여 한자어 형용사로 쓰인다. 이에 본 절에서는 한국어의 한자어 형용사를 형태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여 보겠다.

한자어 형용사는 한자어와 결합하는 후행요소의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4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 (16) I. ‘하다형’의 경우 : 간단하다
II. ‘하다형’·‘기타형’의 공존의 경우 : 불량하다/불량스럽다
III. ‘타형’만 존재하는 경우 : 불만스럽다
IV. ‘하다형’ 한자어 동사와 양립하는 경우 : 후회하다/후회스럽다

‘하다형’의 ‘하다’는 한자어 동사의 경우와 같이 어휘적인 의미는 가지지 않은 채 한자어 명사를 형용사화하는 기능적인 역할만 하고 있으며 생산적이다. 이와 같은 I 그룹의 ‘하다형’ 한자어 형용사는 현대어에서는 대부분 차지한다. II 그룹의 ‘불량하다’도 ‘하다형’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하다형’만 존재하는 ‘간단하다’와 다른 점은 ‘기타형’인 ‘불만스럽다’도 공존한다는 사실이다. III 그룹의 ‘불만스럽다’는 ‘하다형’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스럽다’와 결합하여 쓰인다. IV 그룹의 ‘후회스럽다’는 아래와 같이 ‘하다형’이 공존하는 한자어 형용사이지만 ‘하다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하다형’ 한자어 동사가 된다.

- (17) a. 과거가 후회스럽다.
 b. 나는 과거를 후회한다.

(17a)의 ‘후회스럽다’는 한자어 형용사이고 (17b)의 ‘후회하다’는 한자어 동사이다. 이는 ‘기타형’ 한자어 형용사와 ‘하다형’ 한자어 동사의 양립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3.2.2.1 ‘하다형’만 존재하는 경우

최현배(1929)는 ‘하다’에 대해서 전성접미사로서 취급하고, 명사나 어근의 뒷부분에 결합하여 형용사로 바꾸는 기능을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서정수(1975)에서는 선행요소가 비실체성 요소인 경우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지 않고 단순히 술어화하는 기능밖에 하지 않는 ‘형식동사’로서 파악하고 있다.

한자어 형용사의 중 ‘하다형’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거의 70%이상¹⁰ 차지하고 있어, ‘하다’가 형용사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2.2.2 하다형과 기타형의 공존

한자어 형용사는 ‘하다형’을 취하고 있지만 ‘기타형’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아래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18) a. 하다형-스럽다형의 공존 : 경박輕薄, 혼잡亂雜, 다양多樣, 만족滿足...(이하 47 개)
 b. 하다형-되다형의 공존 : 노후老朽, 진실真寔, 충만充滿
 c. 하다형-쩍다형 : 수상殊常, 무안無顏
 d. 하다형-롭다형 : 한가閑暇, 위태危殆
 e. 하다형-나다형 : 특별特別, 각별各別

‘하다형’과 ‘기타형’의 공존의 경우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다형-스럽다형’,

¹⁰ 본고에서 수집한 946 개의 한자어 형용사 중 ‘하다형’ 만이 나타나는 것은 72.7%(688 개)로 한자어 형용사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다형-되다형’, ‘하다형-쩍다형’, ‘하다형-롭다형’, ‘하다형-나다형’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18)과 같이 ‘하다형’과 ‘기타형’이 공존하는 경우, ‘하다형’과 ‘기타형’의 사이에 의미의 차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하다형’과 ‘기타형’의 의미가 다른 경우도 관찰된다.

- (19) a. 품행이 방정(方正)하다.
 b. 저 사람은 방정(方正)맞다.

이상 언급한 것은 ‘하다형’과 ‘기타형’이 공존하고 있는 경우로, ‘신비(神秘)’의 경우는 ‘하다형’과 두 가지의 ‘기타형’이 함께 쓰인다.

- (20) a. 신비한 이야기
 b. 신비스러운 이야기
 c. 신비로운 이야기

3.2.2.3 기타형만 존재하는 경우

한자어 형용사의 분류에는 ‘기타형’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한자어와 ‘차다, 되다, 굶다, 지다, 찌다,롭다, 맞다, 스럽다’라는 접미사가 결합한다.

- (21) a. 차다 : 가열苛烈, 활기活氣
 b. 되다 : 망령妄靈, 세련洗練, 영광榮光, 외람猥濫
 c. 굶다 : 심술心術, 험상險狀
 d. 지다 : 굴곡屈曲
 e. 찌다 : 겸연慚然, 미심未審
 f. 롭다 : 다채多彩, 순조順調, 여유余裕, 자유自由, 평화平和, 호화豪華
 g. 맞다 : 궁상窮狀, 극성極盛, 변덕變德
 h. 스럽다 : 고급高級, 다행多幸, 불만不滿, 비밀秘密, 자연自然, 자유自由

또한 두 가지의 ‘기타형’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어 아래와 같이 예를 제시할 수 있다.

- (22) a. 슥다-맞다의 공존 : 궁상窮狀, 극성極盛, 변덕變德
- b. 슥다-되다의 공존 : 망령妄靈, 영광榮光, 외람猥濫
- c. 슥다-긋다의 공존 : 심술心術, 험상險狀
- d. 슥다-쩍다의 공존 : 겸연慚然, 미심未審
- e. 슥다-롭다의 공존
: 명예名譽, 영예榮譽, 예사例事, 자유自由, 평화平和, 호화豪華

3.2.2.4 하다형 한자어 동사와의 양립

‘기타형’의 한자어 형용사와 ‘하다형’ 한자어동사가 양립하는 경우가 있다.

- (23) 한자어 형용사 ‘한자어+스롭다’- 한자어 동사 ‘한자어+하다’의 양립
: 감격感激, 감탄感嘆, 경멸輕蔑, 과장誇張, 실망失望, 혐오嫌惡, 후회後悔

(23)의 한자어의 거의 대부분이 인간의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성 명사이다. 한자어 동사 ‘하다형’과 양립하는 한자어 형용사의 ‘기타형’은 주로 접미사 ‘스롭다’가 한자어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안예리(2008)에서는 하다형 한자어동사보다 ‘기타형’ 한자어 형용사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4. 요약 및 나가기

본 논문에서는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일본인 학습자들이 한자어를 동사화 또는 형용사화시킬 때 한자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일 한자어를 대조하여 특히 한자어와 후행요소의 결합 형태에서 어떤 양상을 드러내는지 살펴보았다. 한자어 동사와 한자어 형용사로 나누어 한자어가 어떠한 후행 요소와 결합하는지 검토한 결과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한일 한자어 동사는 주로 ‘하다’와 ‘する’, ‘되다’와 ‘される’가 대응되지만, ‘되다’와 ‘する’, 기타 동사인 ‘치다, 가다, 시키다, 나다’와 ‘する’가 대응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하다’가 아닌 기타 동사로 나타난 이유로 한국어에서의 한자어의 동작성이 약해진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한자어의 동작성이 약해졌을 경우, 동사화할 때 기능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하다’로만으로는 동사화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와 결합하는 것이다.

일본인 학습자는 모어의 영향에 따라 동일한 한자어의 경우에는 ‘する’에 대응하는 ‘하다’를 결합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する’와 ‘하다’가 대응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하다’가 대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학습자에게 주의를 주고 빈도가 높은 한자어의 경우는 한자어뿐만 아니라 후행요소와 결합한 형태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자어 형용사의 경우, 일본어의 ‘한자어+だ’와 한국어의 ‘한자어+하다’가 대응되어 나타나지만, 한국어 한자어 형용사는 ‘하다’ 이외의 다른 형태의 동사나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한자어 형용사를 형태에 따라 ‘하다형만 존재하는 경우’, ‘하다형과 기타형이 공존하는 경우’, ‘기타형만 존재하는 경우’, ‘하다형 한자어 동사와 양립하는 경우’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것만으로도 한자어 어휘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일본인 학습자에게 모어의 간섭이 클 것이라 생각되는 동형 한자어를 중심으로 한자어와 후행요소의 결합에 대해서 대조 고찰하여 후행요소에 따라 분류를 해보았다. 이 분류를 기반으로 향후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목록의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参考文献

- 국립국어원 편(2007) 『사전에 없는 말 신조어』 태학사
김중섭(199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자교육 연구” 인문연구 25-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김창구(2003) “한일 한자 어휘의 대조 분석과 교육적 접근”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정수(1975) 『동사 ‘하’ 문법』 형설출판사
손연자(1984) “비한문 문화권의 외국인에 대한 한자교육 방법론 소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9-1

- 손혜서(2014) “동형의 한중 한자어 형용사 대비 연구”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야마시카 카즈미(2002) “일본어 모어 학습자를 위한 ‘하다’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성호(2015) “‘한자어 어근·하다 형용사’ 의미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동은(2002)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한자 발음 교재 개발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사노 테루아키(2004)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한자 교육 방안 연구” 선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장나(2015) “현대 한국어 한자어 어근 파생형용사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혜경(2010) “한국어 어휘교육을 위한 한일 한자어 대조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현배(1929) 『우리말본』 정음사
- 카이모리 토키코(2005) “일본어 모어 화자를 위한 한국 한자어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토우조우 나오코(2008) “한국어 ‘하다’ 와 일본어 ‘する’ 용언의 대응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生越直樹(1982) 「日本語漢語動詞における能動と受動-朝鮮語 hada 動詞との対照-」 日本語教育 48
- 柴公也(1993) 「漢語動詞の態をいかに教えるか-韓国人学生に対して-」 『日本語教育』 59
pp144-156
- 趙惠真(2017) 「日韓漢語動詞における通時的対照研究」 北海道大学博士学位論文
- 尹盛熙(2005)
「韓国語の動詞性名詞に関する考察:動詞性名詞の意味と形式動詞の選択を中心に」 東京大学
博士学位論文

(北海道大学文学研究科)

chohyejin0414@gmail.com

韓国語教育研究 第8号

ISSN 2186-2044

2018年9月10日印刷

2018年9月15日発行

発行 日本韓国語教育学会
〒577-8052 大阪府東大阪市小若江3-4-1
近畿大学 国際学部 酒匂康裕 研究室気付
e-mail: jaklemejiro@gmail.com

編集 韓国語教育研究編集委員会
(委員長 / 金世徳 kim0120sdjp@yahoo.co.jp)

印刷 株式会社 仙台共同印刷
〒983-0035 宮城県仙台市宮城野区
日の出町二丁目4-2
TEL 022(236)7161(代)/FAX 022(236)7163